

행장(行狀)에 재현된 조선시대 어머니상

—부덕(婦德), 의로움, 취향의 면에서

조혜란*

<차 례>

1. 서론
2. 전형적 이상형에 부합한 어머니상 : 공통된 기억으로서의 부덕(婦德)
3. 개성이 드러나는 어머니상
 - 1) 의로움의 강조 : 판단주체로서의 어머니
 - 2) 취향의 유로(流露) : 개인으로서의 어머니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문집총간』 소재 17·18세기 어머니 행장(先妣行狀)을 대상으로 하여 그 재현 양상을 살피고, 조선시대 양반 여성 재현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 목표이다. 조선시대 여성 행장 중 그 수가 가장 많은 것이 어머니 행장이며, 그 서술 분량 또한 풍부하다. 그러므로 어머니 행장의 경우는 보다 섬세한 서술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집안의 어른인 어머니, 할머니 행장에서는 유교적 여성상을 재현하는 데 전형적인 항목도 보이지만, 이 외에 부수적인 교양 자질이나 재능, 여가와 연결 가능한 여공(女功)에 대한 서술 등 다양한 추억들도 적고 있다. 본고는 유교적 여성상에서 예상 가능한 전자보다는 대상 여성의 여타 자질들 및 여가, 취미 등의 요소에 주목하려 한다.

어머니 행장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행장에서 어머니의 청렴함, 공적 영역에 속한 재화와 사적 영역의 재화를 선명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태도, 당대 정치 상황에 대한 판단 등의 일화가 서술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남성들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누락 없이 수록하고자 하는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이 같은 내용들

* 이화여대 국문과 부교수

이 본인에게 또 가문의 후손들에게 자기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기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일화의 주인공이 어머니일 경우, 유교 경전이나 조선시대 여성 규훈서에서는 굳이 강조하지 않았던 여성의 판단 능력, 정치적 감각 등에 대한 적극적 인정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유교 경전이나 규훈서 등의 이념적 담론에서는 판단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행장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의로움에 대한 서술은 실제 삶의 국면에서 드러나는 인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식이나 교양, 취미나 재능 등에 대한 서술 양상 분석은 이 같은 요소들이 유교적 덕목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해당 여성의 개인적 관심사, 지적 호기심 등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판단 가능하게 해 준다. 어머니 행장에서 드러나는 지식이나 교양, 여가 등에 대한 서술 양상은 다른 기록을 통해서 드러내기 어려운 조선시대 양반 여성들의 개인적 면모, 취향, 향유의 면모를 읽어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부덕이나 의로움에 비해 여가, 취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대상 자료의 수는 적었으나 취미나 여가 등에 대한 고찰은 가족 관계를 전제로 한 어머니나 아내 혹은 딸 등이 아닌 개인 여성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 행장(行狀), 선비행장(先妣行狀), (돌아가신) 어머니, 부덕(婦德), 의로움, 취미

1. 서론

죽은 이의 일화를 모아 놓은 행장(行狀)은 원래 묘지명(墓誌銘)을 쓰기 위한 자료로 간주되던 글이다. 행장의 주 대상은 양반 남성들이었는데, 17세기 이후가 되면 양반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행장도 그 수가 현저하게 늘어난다¹⁾. 여성들의 행장 역시 어머니, 부인, 딸, 할머니, 고모, 서모, 누이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선시대 양반 남성들은 자신들이 남긴 문집만이 아니라 후대에 편찬되는 연보, 전(傳) 혹은 여타의 공식 기록 등을 통해 생애 재구성이 가능하나, 여성들 경우는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이 거의 없다. 열녀전(烈女傳)이 아니라면 조선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경우는 대개 죽은 후 제문, 묘지명, 행장 등을 통해 기려지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들은 죽은 이후에야 아들, 남편 등 남성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기록을 얻고, 그들의 문집에 공식 수록된다²⁾. 행장은 죽은 이에 대한 정보와 기억을 최대한 모아서 기록하는 장르이기에 대상 여성에 대한 생애 정보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남아 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여성 행장은 여성에 대한 전기적(傳記的)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행장을 비롯하여 유사(遺事), 행록(行錄), 언행록(言行錄) 등의 글을 도합 행장류라고 칭하는데, 본고는 우선 『한국문집총간』 중 17·18세기 문집에 수록된 어머니 행장류를 대상으로 한다³⁾. 조선시대 여성 행장 중 그 수가 가장 많은 것이 어머니 행장이며⁴⁾, 어머니 행장은 각 편의 서술 분

-
- 1) 이경하의 논의에 의하면 『한국문집총간』 수록 글의 경우, 망실행장(亡室行狀)을 비롯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묘지명, 제문 등의 글이 17세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였다. 이경하, 「망실행장류연구」, 『한국문화』 40,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4쪽.
 - 2) 어머니 행장의 경우, 글의 최종 작성자는 아들이다. 그런데 행장을 쓰는 과정에서 고모나 누이 등 집안의 여성들이 기록해 둔 한글 자료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한문으로 옮겨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 3) 본고가 17세기 어머니 행장부터 논의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각주 2)에서 밝혔듯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장류, 비지류 등의 글이 늘어나며, 동시에 이 시기에 실시한 종법제 강화가 여성생활에 미친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세기, 20세기 초 문집 수록된 어머니 행장들은 17·18세기 어머니 행장과는 구별되는 양상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작품 수가 많아 17·18세기 어머니 행장과 함께 다루기에는 벅차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17·18세기 문집에 수록된 어머니 행장을 대상으로 양상과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19세기, 20세기 초 문집 소재 어머니 행장은 추후의 작업으로 남기고자 한다.

량 또한 풍부하기 때문이다. 내외법이 철저하게 적용되던 조선 사회에서 여성은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효(孝)의 대상이 되며 집안의 어른이기도 했던 어머니는, 여성이지만 이념적으로 견고한 지위를 지닌 존재였다. 이 같은 이유로 본고는 어머니 행장을 주된 대상 자료로 삼는다⁵⁾⁶⁾.

-
- 4) 17-18세기 문집 소재 망실행장(亡室行狀)이 15편인 데 비해 선비행장(先妣行狀)은 31편으로, 어머니 행장은 아내 행장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본고는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어머니 행장을 대상으로 한 논의로 『한국문집총간』 소재 어머니 행장은 일별하였으나 다른 문집류에 속한 어머니 행장이나 한글로 된 어머니 행장 등의 자료 등은 포괄하지 못 하였다.
- 5) 필요한 경우 어머니 행장류에 더하여 할머니, 외할머니, 장모, 고모 등 집안 여성 어른들의 행장도 포함하여 살피고자 한다.
- 6) 어머니 행장[先妣行狀]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최근 들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 행장에 대한 논의로는 이규대, 『<선비전주이씨행장>을 통해 본 18세기 여성의 생활상』, 『역사민속학』 2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김현미, 『19세기 선비행장류 글에 형성화된 어머니의 가르침-자녀 교육 태도와 교육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황윤정, 『가문 질서 재생산으로서 여성 행장의 글쓰기 방식 연구-김만중의 <선비정경부인행장>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김세서리아, 『<선비행장>에 대한 여성주의 독해』, 『울곡사상연구』 30, 울곡연구원, 2015; 이승희,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선비정경부인박시유스>의 자료적 고찰』, 『한국문화』 75,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김영, 『한글 필사본 <광산김씨연행록>의 자료적 고찰』, 『인문사회』 21, 제 8권 제 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등이 있다. 이규대의 연구는 행장 대상 여성의 가계 및 개인의 정보 고증이 중요 내용이고, 한글 행장을 다루는 이승희의 논의는 국어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 같은 한글 행장을 대상으로 한 김영의 논문은 행장의 서술 내용을 분석하고 대상 인물의 생애를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황윤정의 논의가 김만중 어머니에 대한 행장 서술에서 유교적 기획을 강하게 부각시켜 의미화한 반면 김세서리아의 논의는 신사임당 행장을 여성주의적 독법으로 읽어내고자 하였다. 김현미의 논의는 19세기 어머니 행장류를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서술에서 이상적 어머니 상에 대한 서술 의도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다른 논문들은 특정 어머니 행장 한 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김현미의 논의는 19세기 어머니 행장류 50여 편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고가 대상으로 한 17-18세기 어머니 행장류를 대상으로 한 기존 논의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는데, 어머니 행장류에 대한 논의는

죽은 이에 대한 기록은 이런저런 이유로 미화될 가능성이 있기 마련이다. 어머니 행장류 역시 유교 지식인인 아들이 망자(亡者)가 된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쓴 글이다. 글쓴이가 구태여 없는 사실을 일부러 지어 내어 있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있었던 사실 혹은 기억나는 사실을 모두 다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억하지만 말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는 동시에, 기꺼이 부각시키고 싶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고의 관심은 행장을 통해 대상이 된 여성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찾아내는 데 있지 않다. 행장에 재현된 어머니 모습은 글쓴이에 의해 재현된 어머니상인 셈이기 때문이다. 즉 어머니 행장은 글쓴이가 기록을 통해 어머니의 어떤 부분을 남기고자 했는가, 자신의 어머니가 후대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본고는 아들의 행장에 재현된 어머니상을 통해 조선시대에 이상적으로 간주했던 어머니상의 구체적 내용을 살피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모성을 담지한 존재로만 환원되는 여성상이나 유교 이념으로 잘 훈육된 여성상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 의지를 지니고 행동하는 여성으로서의 이미지, 취향이나 취미를 지닌 존재로서의 여성 등의 요소를 찾을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고자 한다. 어머니 행장의 서술 의도는 자신의 어머니를 당대에 존경 받을 만한 이상적인 여성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데 있을 것이다. 어머니 행장은 규범적 장르이기에 연구자가 유교적으로 규범적인 서술 내용에 집중한다면 글쓴이의 의도를 환원론적으로 추출해 낼 가능성이 있다. 본고가 취하는 접근 방식은 이 같은 독법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머니 행장은 가문의 교육용 자료로 쓰였으며 특히 여성을 교육하기

조선시대 여성의 전기적 자료를 총체적으로 의미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⁷⁾. 어머니 행장이 집안 여성 교육 자료로 활용된 것을 보면 여기에서 재현되는 여성상은 유교적 이상형에 부합하는 여성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개 자식에게 어머니는 가족 구성원 중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놓인 특별한 대상이기도 하다. 규범적 전형과 사적인 친밀감의 대상인 어머니는 행장에서 어떻게 재현되는가, 사회적 담론 차원에서 관념적으로 규정하는 유교적 여성상과 가문에서 기려졌을 실제 어머니상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들의 재현을 통해 드러나는 어머니의 양상은 경전과 실제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17·18세기 문집에 수록된 어머니, 할머니⁸⁾ 행장류는 대략 40여 편⁹⁾에 달하며, 편수가 많은 만큼 행장을 남긴 이들 또한 이 세백(李世白: 1635-1703), 김만중(金萬重: 1637-1692), 임방(任墜: 1640-1724), 조지겸(趙持謙: 1639-1685), 오도일(吳道一: 1645-1703), 김주신(金柱臣: 1661-1721), 이의현(李宜顯: 1669-1745), 최창대(崔昌大: 1669-1720) 등 40명이 넘는다.

본고는 이들이 남긴 어머니 행장을 살피되, 여성을 조선시대의 피해자

7) 조선시대 가문 교육 자료로 이용되었던 것은 한글 행장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표기 문자의 특성 상 특히 여성들의 교육 자료인 경우라면 한문 행장보다는 한글 행장이 활용 가능성이 더 높다. 이승희,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자료적 고찰』, 『한국문화』 75,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105쪽; 한글 필사본 행록과 해당 가문의 여성 교육에 대해서는 김영, 『한글 필사본 <광산김씨언행록>의 자료적 고찰』, 『인문사회』 21, 제 8권 제 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474쪽.

8) 아들에 의해 마무리된 어머니 행장류도 그 기초 자료는 글쓴이의 고모나 혹은 아들이 쓴 기록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덕수의 <선비행록>은 원래 그의 아들인 이산해가 할머니에 대해 쓴 기록을 토대로 정리한 글이다. 이덕수는 이 글에서 아들 이산해의 필치가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어머니 대신 할머니라는 호칭을 그대로 노출시켜 놓기도 한다. 할머니 역시 여성 가족 구성원 중 어른의 위치에 속하며 이덕수 어머니 행장의 경우처럼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혼재해 있는 텍스트가 있기에 본고는 할머니 행장 역시 참고 자료로 삼을 것이다.

9) 생모, 양모를 포함하여 어머니 행장(先妣行狀)은 34편이고, 할머니 행장은 9편이다.

로 정체화하는 시각을 지양하는 입장에 서서 조선시대 어머니 행장의 서술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기존의 유교 담론에서 요구하는 여성상과 견주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과연 조선시대 아들들은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소망했었는지,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가 텍스트로 삼은 것은 문집총간에서 여성관련 자료를 뽑아서 번역 주석한 『17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전 4권, 보고서, 2006), 『18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전 8권, 보고서, 2010),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자료집』(전 9권, 보고서, 2013)에 수록된 어머니 행장류 작품들이다.

2. 전형적 이상형에 부합한 어머니상

: 공통된 기억으로서의 부덕(婦德)

부덕(婦德)에 관련한 일화는 어머니, 아내, 딸 등 기리고 싶은 모든 여성의 행장에서 발견된다. 당연히 할머니, 고모 등의 행장에서도 이상적인 유교적 여성상에 부합하는 자질들은 고루 언급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효성스러웠다든지 시집 와서는 시부모 봉양을 매우 잘 했으며, 시누이·동서들과 화목하고, 근면검소하고, 종들에게 엄격하면서도 인자했다든지,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든지, 시부모나 남편이 병이 났을 때 몸소 병간호를 했고 책만 읽는 남편 대신 살림을 도맡아 다 했다는 식의 내용들 역시 공통적이다. 여공(女功)의 경우도 빠짐없이 잘 수행한 것으로 서술되는데, 예외적으로 어른들이 가르치치 않았어도 해당 인물은 여공에 빼어난 솜씨를 보이는 것으로 서술된다¹⁰⁾. 어머니 행장 속

10) 예를 들어, 이덕수 어머니 행장의 경우, 그 어머니는 태어나서부터 몸이 약해 부모님

여성들은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부지런히 노동하여 가족이나 손님들의 먹을 것을 알아서 마련했으며, 자식들 교육도 잘 시켰고, 훗날 편안하게 살게 된 이후에도 검소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그려진다. 간혹 불공을 드리거나 굿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나 이 항목은 앞에 열거한 요소들보다는 빈도수가 적다.

이 내용들은 대개 『여사서(女四書)』와 같은 여성 규훈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덕목들이다. 여성의 사서(四書)로 여겨질 만큼 여성 교육에서 중요한 텍스트였던 『여사서』는 동아시아에서 여성 교육서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고, 조선의 경우 1734년에 영조가 이덕수에게 언해¹¹⁾하도록 명하여 부녀자들도 널리 읽을 수 있게 하였다. 『여사서』에 속해 있는 네 가지 텍스트는 「여계(女誡)」, 「여논어(女論語)」, 「내훈(內訓)」, 「여범첩록(女範捷錄)」으로, 각 목차의 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어머니 행장의 부덕(婦德) 내용들에 상응한다.

각 권별 목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계」는 여성은 스스로를 비약(卑弱)한 존재로 정체화해야 마땅하며,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하고, 공경, 순종, 덕 있는 행동 등을 강조하고, 남편에게 온 마음을 쏟아야 하며, 시부모를 정성껏 따르고 시집 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여논어」는 자신을 바로 세워 일을 배우고, 예를 배우며,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자리에 들며, 친정 부모와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가르치고, 가정 경영, 손님 접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절개를 지키는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내훈」에서는 덕성, 수신,

이 여공은 아예 시키지도 않았고 시집 온 이후부터 여공을 시작했는데도 이와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공도 반복 습득해야만 익숙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같은 서술은 여공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11) 이숙인, 『여사서』, 여이연, 2003, 350~351쪽.

신중한 말, 조심스러운 행동, 열심히 노동하는 것, 절약과 검소, 조심하는 태도, 선을 쌓고 실천하는 것, 부모·시부모 섬기기, 제사 받들기, 훌륭한 어머니, 친척과의 화목, 첩에 대한 배려, 외척 관리 등이 열거되어 있고, 『여범첩록』은 항목별로 이상적 인물들의 예를 열거하고 있는데 황후, 어머니, 효행, 정절, 충성과 의리, 자애, 예, 지혜, 검소, 부지런함, 재능과 학식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네 가지 책의 항목을 살펴보면 어머니 행장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기리면서 서술하는 일화들과 많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조선양반 여성들은 시집가기 전 친정에서부터 이런 내용들을 교육 받았을 것이기에 유교적 부덕에서 요구하는 대로 실천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씨부훈』이나 『소학』, 『열녀전』 등은 남성의 독서물이기도 했기에 이상적 여성상의 전범에 대해서는 남성들 역시 숙지하고 있었고, 그 결과 거기에 맞게 조절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여성 행장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덕 항목은 글쓴이가 자신이 아는 내용을 환기하며 서술했을 가능성과 더불어 규범에 맞게 수사(修辭)를 선택했을 가능

12) 어머니 행장 서술이라고 하면 유향의 『열녀전(列女傳)』 중 기릴 만한 어머니 사례를 모은 『모의전(母儀傳)』 서술 방식과 유사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종류의 서술을 비교해 보면, 조선의 어머니 행장은 서술 분량이 풍부하고 많은 반면, 유향의 『열녀전』은 항목별로 해당 여성인물 예를 들고 간단한 일화를 기술하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물론 『열녀전』에 나오는 여러 여성들의 미덕을 합치면 어머니 행장에서 기술하는 여러 일화들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열녀(烈女)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성 인물들을 열거하는 유향 『열녀전』에는 의로움이나 올바름 등 가치 기준을 내세우면서 남편이나 아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어머니나 아내의 형상이 비중 있게 다뤄진다. 유향의 『열녀전』 중에는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있고(모의전), 여성들의 의로움이나 올바름에 대한 기술이 들어있기는 하나, 어머니 행장의 서술은 유향의 『열녀전』보다는 『여사서』 쪽에 더 가까워 보인다. 조선시대 여성들을 기릴 때 열거되는 부덕의 항목들이 유향의 『열녀전』보다는 『여사서』 쪽의 항목들과 더 많이 겹쳐져 보이기 때문이다.

성도 있다. 또 실제 해당 여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일례로 기초 자료 <선비유사(先妣遺事)>에서는 임헌회 스스로 ‘엄한 시어머니’로 표현했던 인물이 <선비가장(先妣家狀)>에서는 ‘여사(女士)’라는 긍정적 표현으로 바뀌어¹³⁾ 있다. ‘엄한 시어머니’와 ‘여사’ 사이에는 분명 거리가 있다.

개인에 따라 약간의 변용은 있지만 행장 대상자들은 모두 사덕(四德)¹⁴⁾을 갖춘, 조선시대에 기릴 만한 훌륭한 여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그 서술이 사실일 가능성은 높겠으나 어머니의 부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개별 여성의 고유한 면모를 엿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부덕에 대한 서술은 어머니 행장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여성 가족 구성원에 대한 거의 모든 비지전장류(碑誌傳狀類)에서 빠짐없이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규범적 여성상을 제시하는 여성 행장류 서술에서 부덕은 일종의 ‘기본값’에 해당한다. 부덕에 대한 서술이 없다면 그 여성은 조선 당대에 훌륭한 여성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여성 행장에서 의례적으로 부덕에 대해서만 서술되어 있다면, 이는 그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기릴 만하거나 특별한 측면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 행장을 비롯한 조선시대 여성 행장에서 평균적으로 등장하는 부덕 항목은 당대의 모범적인 여성 ‘공통의 것’이었다.

13) 서경희(역주), 임헌회, <선비유사>, <선비가장>,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6, 54쪽, 63쪽. 유교에서는 훌륭한 여성을 기릴 때 여사(女士) 혹은 여중군자(女中君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여사’라는 표현은 부덕은 물론 지적인 능력까지 겸비한 여성에 대한 지칭으로, 가장(家狀)으로 정리하면서 ‘엄한 시어머니’라는 표현을 ‘여사’로 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14) 사덕(四德)은 여성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목으로 부덕(婦德), 부용(婦容), 부공(婦功), 부언(婦言)을 가리킨다.

3. 개성이 드러나는 어머니상

1) 의로움의 강조 : 판단주체로서의 어머니

어머니 행장류를 보면 때로 부덕에 해당하는 공통요소 외에 눈에 띄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의로운 태도에 대한 서술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의(義)는 앞에서 열거한 부덕(婦德) 항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요소이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은 판단의 문제인데, 유교 경전에서는 여성이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술과 밥 정도, 즉 가사노동이나 집안의 일로 국한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시경』에 의하면, ‘아들을 낳으면 침상에 눕혀 기르고 장차 입신양명해서 집안을 일으킬 자로 기대하고, 딸을 낳은 경우에는 바닥에 눕혀 기르고, 옳다 그르다 할 것 없이 밥하고 술 빚는 일 정도를 의논하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더군다나 딸의 경우는 ‘부모에게 걱정이나 안 끼치면 되는 존재¹⁵⁾’로 그려진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자면 딸(여성)은 다른 가능성은 없이 오직 밥하고 술 빚으며 사는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의논의 대상 역시 가사노동으로 국한된다. 이 밖의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이는 부덕에 합당한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유향도 『열녀전(列女傳)』 『모의전(母儀傳)』에서 맹자의 어머니에 대해 기록하면서 『시경』의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 다음 연결이 ‘부인에게는 자신의 뜻대로 행할 도리는 없고 삼종지도가 있다(以言婦人無擅制之義, 而有三從之道也)’로 귀결된다. 이에 따르면 여성은 판단의 주체일 수 없으며 평생 집안의 남성 구성원의 뜻에 따라야 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내외법이 철저

15) “乃生女子 載寢之地 載衣之榻 載弄之瓦 無非無儀 唯酒食是議 無父母詒懼”, 『詩經』 『小雅』 <斯干>편. 이 내용은 유향의 『列女傳』, 이덕무의 <士小節>과 같은 책에도 반복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히 적용되면 여성은 정치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 대한 판단과는 거리가 더욱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들이 기록한 어머니 행장을 보면 여공 외에 그녀들이 유의미하게 관여한 부분으로 당대 정치와 벼슬살이 등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정치 관도에 대한 판단이나 출처(出處)에 대한 선택 등은 공적 영역과 연관된 문제이다. 그리고 아들들은 이와 관련한 어머니의 일화¹⁶⁾를 중요한 기억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 당시 사람들이 고을의 수령을 한 번 지내면 집안 살림을 크게 일으키는 것을 천하게 여겨, 남편을 따라 대여섯 곳의 주군에 나갔을 때는 몸을 닦고 언행을 삼가는 것을 엄격히 하여 안팎이 서로 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세백, <선비안동김씨행장(先妣安東金氏行狀)>¹⁷⁾

일찍이 집안사람 중에 벼슬을 그만 둔 사람이 관아의 재물을 자기 집으로 돌렸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두 아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녹봉으로 남긴 재물은 그래도 자기가 가질 수 있지만, 관아의 공공의 재물이 어찌 집안을 윤택하게 꾸미는 밑천이 될 수 있겠느냐? 세상에 비록 끈고 깨끗한 선비라도 또 부인들에 의해 잘못되는 일이 많이 있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 너희들이 훗날 만약 스스로 군세어지지 않는다면 선조를 욕보이기로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김주신, <선비행장(先妣行狀)>¹⁸⁾

16) 이처럼 공적인 영역에 대한 판단하고 실천하거나 혹은 남편의 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친 경우는 주로 어머니 행장 기록에서 발견된다. 또 이런 일화를 지닌 여성 역시 여공은 기본 자질로 기록되어 있다.

17) 김경미(역주), 이세백, <선비안동김씨행장(先妣安東金氏行狀)>, 『17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 1, 보고사, 2006, 270쪽.

18) 김남이(역주), 김주신, <선비행장(先妣行狀)>,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7, 보고사, 2010, 101쪽.

근래에 재상집에는 으레 온갖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는데 어머니께서는 항상 비천하게 여기며 “선비의 집안이 어찌 이처럼 잡스럽고 어지러운가!” 하시고 엄격하게 금하셨다. 여인의 거처 안으로는 다만 가까운 친척이나 하인들의 출입만을 허락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연줄로 벼슬을 청하는 자들은 바로 엄격하게 꾸짖고 내쳐 끊었으며 과일이나 작은 물건들도 경솔하게 받지 않으시니 사람들이 모두 경외하고 칭송하여 “상공뿐 아니라 그 부인의 청렴함도 세상에 드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의현, <선비정경부인영일정씨행장(先妣貞敬夫人迎日鄭氏行狀)>¹⁹⁾

아버지 또한 마음으로 중히 여기며 조정에 오르게 되자 비록 거취와 출처 같은 것도 때때로 의논하였다. 아버지께서 옥당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임금은 어리고 군소배들이 정치를 어지럽히며 옛 신하들은 죄인의 명부에 이름이 많이 올라 있었다. 아버지가 시국에 관한 일을 논하여 상소를 올리려고 하다가 늙은 부모님이 쫓겨나 유배당하게 될까 걱정하니 어머니는 “바른 말을 하다가 죄를 입는 것은 진실로 학사의 영광입니다. 또 권력을 잡은 자들이 오레기는 이치는 마땅히 없을 것인데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라고 분별하여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결단하여 상소를 올렸다가 관직에서 쫓겨나셨지만 조금 있다가 군소배들이 죄를 입어 쫓겨나고 아버지는 높은 자리에 등용되었다.

—최창대, <선비정경부인경주이씨행장(先妣貞敬夫人慶州李氏行狀)>²⁰⁾

어머니의 관아 생활 태도, 아버지의 출처(出處)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 등에 대한 서술은 어머니 행장의 곳곳에서 드러난다. 위 예문은 그 중 네 경우만을 예시한 것이다. 첫 번째 예문은 이세백의 어머니 일화로, 당

19) 앞책, 이의현, <선비정경부인영일정씨행장(先妣貞敬夫人迎日鄭氏行狀)>, 323쪽.

20) 앞책, 최창대, <선비정경부인경주이씨행장(先妣貞敬夫人慶州李氏行狀)>, 405~406쪽.

시 지방 수령이 되면 재산이 불어날 수 있었는데 그녀는 이를 천하게 여겼다고 한다. 당시 지방관은 재산을 축적하는 길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세백 어머니는 본인이 그런 위치에 처했을 때는 ‘몸을 닦고 언행을 삼가’ ‘안팎이 통하는 것을 금했다’고 한다. 이때의 ‘안팎’이란 남녀 성별 구도에 따른 ‘내외’ 개념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서의 밖’과 ‘사적 영역으로서의 안’에 대한 구분을 의미한다. 이세백의 어머니는 공사 구분을 통해 뇌물이나 청탁이 접근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아들은 시비를 가려 의로운 선택을 하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두 번째는 김주신의 어머니 일화로, 집안사람 중 벼슬을 그만 둔 이가 관아의 재물을 자기 집으로 돌렸다는 말에 대한 반응이다. 김주신 어머니는 사적 소유화가 가능한 재화와 공적인 재화를 구분하여, 개인이 공공의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세 번째 이의현의 예문은 연줄을 이용한 벼슬 청탁, 뇌물 제공 등을 단호하게 금한 경우이다. 이의현의 어머니 역시 청탁의 대상이 되어 뇌물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단호히 막은 것이다. 고위 관리의 부인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차단한 예라 하겠다.

이런 면모는 단지 검소한 생활 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의 벼슬살이 행태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선택을 보여주는 것²¹⁾이다. 즉 세

21) 여기에서 예문 인용을 하지는 않았으나 김만중 어머니인 해평 윤씨도 아전이나 역관, 시정배들의 청탁을 문제 삼으면서, 벼슬하는 사람들의 부녀자들이야말로 그들이 뇌물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하면서 경계하고 있다. 당대에 통용되던 방식이기에 이세백 어머니 행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고을 수령을 한 번 지내면 집안 살림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인데 김만중의 어머니도 부인들의 뇌물 수수, 청탁 등을 통한 벼슬아치의 부의 증대를 불의한 일로 판단하였다. 해평 윤씨는 손자 김진규가 경기 감사가 되었을 때 그 휘하 고을 원이 해평 윤씨 생일에 보내온 선물도 끝내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김경미(역주), 김만중, <선비정경부인행장>, 『17세기 여

태와는 다르게 우리 어머니가 의로운 선택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은 서술인 것이다. 공적인 권력과 관련한 가치 판단의 문제와 이에 따른 올바른 선택을 한 어머니, 다시 말해 ‘우리 어머니’는 ‘주식시의(酒食是議)’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자질까지도 갖췄다는 강조가 된다.

네 번째 예문은 이를 더 잘 보여준다. 최창대의 어머니는 평소 판단이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기에 남편 또한 이를 유념했다가 자신이 벼슬에 나가게 되자 벼슬 할 때와 그만 뒤야 할 때 등을 결정할 때 부인의 의견을 경청했던 것이다. 최창대 어머니는 남편 최석성(崔錫鼎)이 남인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려 하다가 주저하자 ‘바른 말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진실로 학사의 영광’이라는 직언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 상소를 올리게 하였다. 이 역시 당시의 정치 구도에 대한 판단 없이는 불가능한 주장이며, 어머니와 사회와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선택이다.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정치적인 판도에 대한 판단까지도 가능했으며, 바른 말을 위해서는 불이익까지도 감당할 자세가 있었던 여성으로 기록하고 있다. 아들이 남긴 가문의 모범적 여성상으로서의 어머니상에는 단지 자신의 가족이나 가문의 잇속으로만 경사되는 인물이 아닌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들은 공통의 부덕 항목에 더하여 어머니의 의로운 선택에 대한 부분도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사회에 의로운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17·18세기 어머니 행장을 보면, 내외법에 합당하게 집안일에만 의견을 내는 여성상과는 달리 당시 정치 세력에 대한 판단, 공의에 대한

성생활사 자료집』 1, 보고서, 2006, 363쪽. 그런가 하면 조지겸의 어머니도 어떤 이가 은으로 만든 술잔을 보내자 즉시 돌려보내는 등 옳고 그름을 정확하여 따져 실천하였고, 부인들이 영화를 누리는데 외직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김경미(역주), 조지겸, <선비행장>,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4, 보고서, 2006, 218~219쪽.

감각 등을 전제로 한 실천적 선택을 한 일화들이 서술되어 있다. 조선시대 여성 교훈서로 널리 받아들여진 『여사서』나 『한씨부훈』, <열녀전(烈女傳)> 등에서는 굳이 드러내지 않았던 판단 주체로서의 여성들의 면모가 아들들의 행장을 통해 기록되고, 드러난다. 이는 아들들이 자기 어머니가 이런 일화도 지닌 인물로 기억되기를 소망한 결과이다. 아들에 의하면, 이같이 판단하고 자기 남편(글쓴이의 아버지)을 설득하고 실행에 옮긴 어머니의 일화는 자랑스러운 것이었고, 그래서 기록되기에 이른 것이다. 어머니 행장류 속의 여성들은 더 이상 남편과 아들의 주장을 따르기만 하는 여성들이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장면에서 남편과 아들이 그 여성의 판단과 주장을 따랐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어머니들의 일화는 생활 속에서 공의로운 선택과 실천을 했던 인물로 읽히기에 충분한 것이기도 하다.

어머니 행장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자애는 오히려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아들 낳기는 절체절명의 사명과도 같은 일이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식하기에 아들이 쓴 어머니 행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절실하게 그려졌을 것도 같다. 그런데 막상 행장을 보면 어머니가 다른 식구들과 일가친척들, 종들 심지어 동네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잘 대했는가에 대해서는 열거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간단하게 언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보면, 오히려 자신을 엄격하게 교육한 일화를 기록해서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기억하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이는 교훈서의 가르침, 당시의 가족 제도나 마을 공동체적인 삶의 양식 등과 관련되어 있겠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만 함몰하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하고자 한 서술이라 하겠다. 아들이 쓴 어머니 행장에 의하면, ‘우리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게만 빠져 사는 존재가 아니었으며²²⁾ 공적 감각을 지니고 삶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

려 의로운 선택을 해 온 여성으로 재현되었다.

2) 취향의 유로(流露) : 개인²³⁾으로서의 어머니

의로움과 관련한 일화가 아들이 기록하여 남기고 싶었던 어머니의 모습에 해당한다면, 이제부터 논의하는 것은 개성적 면모에 대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자세히 기록하고자 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요소에 가깝다고 하겠다.

17세기 이후 여성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효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잣대가 작용할 수 있었다.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어머니 혹은 할머니 행장 서술에서는 해당 여성의 개인적 자질에 가까운 항목들에 대한 다양한 서술 편차가 분석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접쳤다. 그런데 집안 여성 어른의 행장이라고 하여 각 편마다 그 여성들의 취미나 교양 등이 서술되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몇 편

22) 이 논문에서는 다 다루지 못 했지만 17·18세기 어머니 행장류에서는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과거급제보다는 학문 자체나 문장 자체에 대한 강조를 하고, 탐심이나 욕심을 경계하는 일화들이 다수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어머니 행장에 이르면 약간 다른 기록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정원용이 어머니에 대해 쓴 가정에서 정원용은 자기 어머니가 자식들의 장수와 부귀를 위해 기도하며, 아이들의 장수와 부귀를 위해서라면 똥도 씹을 수 있다고 말한 일화를 기록하고 있다. 19세기에 기록된 어머니 행장에서는 학문이나 문장, 인품 등과는 거리가 있고, 장수와 부귀에 대해 욕망을 노출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려지지 않고 서술되어 있다. 김현미(역주), 정원용, <선비증정정부인용인이씨가장>,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4, 보고서, 2013, 320쪽.

23) 이때의 ‘개인’이란 ‘근대 주체로서의 개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조선시대에 여성은 어머니, 아내, 딸 등 가족 관계망 속에서만 유의미한 존재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어머니 행장에서 서술되는 어떤 일화들은 그 여성이 어머니, 아내, 딸 등 가족 관계에서만 파악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이 지니고 있었던 고유한 어떤 부분과 관련되어 보이는 것들이 있다. 즉 여기에서의 ‘개인’이란 어머니도, 아내도, 딸도 아닌 개별적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의 행장에서 이 같은 요소들이 드러났다. 소수라고 하여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개성이나 취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오히려 억압하도록 했던 당시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취미나 여가를 보여주는 자료로 유의미하다고 여겨진다.

취향이나 취미, 여가 등의 영역 중 특히 지적인 자질, 한문 교양의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양반 여성들에게도 갖추면 좋을 교양으로 권장되었다. 이는 여성이 속한 가문의 족보나 역사를 전수하는 지식과 직결되는 것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식 교육을 위한 자질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여성상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어머니나 할머니의 행장을 보면 그녀들이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경전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종종 등장한다. 그러나 가문 유지 및 자식 교육의 필요를 넘어서는 한시문에 대한 취향이나 유교 경전에 대한 학문적 경사(傾斜) 등은 부덕(婦德)의 요소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친정에서는 가족 사회를 즐길 정도였지만 시집간 이후로는 그런 취향을 전혀 드러내지를 않아, 시집에서는 그 여성의 한문 교양이나 작시(作詩) 능력 등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언급을 덧붙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언급은 한시문을 짓고 즐길 정도의 지적 능력은 드러내면서도 부덕에 흠이 되는 것은 피하고자 하는 서술자의 태도를 보여준다²⁴⁾. 그런데 어머니 행장 중에는 이 같은 내용을 가

24) 17세기 여성에 대한 사례를 두 가지만 들어 보면, 두 아들 교육을 손수 했을 정도의 한문 교양을 지닌 해평 윤씨에 대해 김만중은 어머니 행장을 쓰면서 '어머니는 글을 쓰거나 시를 읊는 일은 절대로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서술을 분명히 덧붙여 두었고, 아버지와 삼촌들이 지적 능력에 대해 다 인정했던 김창협(金昌協)의 딸 김운(金雲) 같은 경우도 시집 식구들은 자기 며느리의 한문 교양에 대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서술을 적어 넣고 있다. 이런 서술은 마치 어머니나 딸의 지적인 면모에 대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당대에는 여성이 한시를 짓거나 본격적인 한문 교양을 갖추는 것은 부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여성의 한문 교양이 궁정

리지 않고 순편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오도일(吳道一)의 <선비행장(先妣行狀)>이 그런 경우이다.

어머니가 겨우 7,8세 때였는데 옆에서 글자에 대해 물었더니, 외삼촌은 여자가 문자를 깨우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하여 꾸짖고 금지하면서 말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능히 몰래 깨우쳐 암송할 수 있었으니 온 집안이 다 기특하게 여겼다. 시험 삼아 <사략>을 주어 보았더니, 춘추전국 시대 이상의 역사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뛰어나게 알았으며, 나머지는 가르쳐 주기 전에 스스로 능히 훤히 깨달아 막힘이 없었다. 열네댓 살 때 외가에 가서 여러 외사촌 형제들과 시를 지었는데 점수를 매기면 번번이 일등을 차지하였다. 이때 지은 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집이 푸른 물가 언덕에 있어 / 문을 나서면 구강의 물 흐르네 / 낙엽은 푸른 물 위에 떨어지고 / 가을 바람은 배 위로 서늘하게 불어온다네.”

—오도일, <선비행장(先妣行狀)>²⁵⁾

만년에는 책과 역사를 좋아하셔서 손에서 책을 놓는 적이 없으셨다. 아들이나 조카들과 더불어 역사의 득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리의 귀결점에 대해 논했으며, 일찍이 집안의 소소한 일로 그 마음에 누가 된 적이 없었다. ……마침 정미년(1667) 봄에 오래도록 가뭄이 들자 고체시를 본받아 <기민탄> 한 편을 지어 그 뜻을 담으셨다. 시는 다음과 같다. “곡식 값 귀하기가 금과 같으니 / 불쌍한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리 / 선비들은 조정에 가득한데 / 때를 바로잡을 재주는 어찌 그리 부족한지. / 어리석은 아낙네가 일을 잘 헤아리지 못 해서인지 / 백성을 편안케 할 정책은 안 보이고 / 깊은 밤 생각이 이에 미치면 / 탄식하다가 괜스레 소리를 삼킨다오.” 시절을 근심하

적으로 인식되는 수준은 본문에서도 서술했듯 가문의 교육이나 유지에 필요한 정도에 한해서이다.

25) 조혜란(역주), 오도일, <선비행장(先妣行狀)>,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4, 보고사, 2006, 242쪽.

고 세속에 대해 분개하는 뜻은 역시 천성에서 얻은 것이다.

—오도일, <선비행장>²⁶⁾

첫 번 예문은 오도일 어머니의 지적 호기심과 한문 교양 수준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의 어머니 한양 조씨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7,8세 때 스스로 한문을 익혀 나중에는 <십팔사략>을 읽고 역사에 대해 해박했으며, 열네댓 살 때에는 외가에서 여러 외사촌 남자들과 시를 지어 점수를 매기면 번번이 일등을 차지했다는 일화가 적혀 있다. 만년에는 책과 역사를 더 좋아했고 아들이나 조카들과 역사의 귀결 및 의리에 대해 논하였다고 하였다. 비단 오도일 어머니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여성 성리학자로 일컬어지는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도 조카들이 그녀에게 모르는 것을 묻거나 혹은 함께 토론했다고 한다. 임윤지당은 경전 해석이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등을 문집으로 남긴 여성 철학자이다. 역사나 의리의 귀결에 대해 논했던 오도일 어머니의 한문 교양 역시 그 수준이 꽤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에는 조씨부인이 지은 한시 두 편이 소개되어 있는데 제목만이 아니라 내용 역시 기록되어 있다. 집안 여성의 시작 활동을 가림 없이 보여준 것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단지 그 여성이 한시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의 내용²⁷⁾에 있다. 특히 두 번째 예문에는 그 중 한 편인 <기민탄(飢民歎)>이 기록되어 있다. <기민탄>은 사회시 계열에 속하는 내용이다. 당시 양반 남성들의 무능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이 같

26) 위의 책, 244쪽.

27) 권장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조선시대 여성 중에는 한시를 짓고 문집으로 남기고 한 경우들도 있다. 그런데 오도일 어머니의 <기민탄>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지 여성이 한시를 감상하고 짓고 하는 한문 교양을 갖췄다는 사실이 아니고, 그 시의 내용이 갖는 시시비비적 성격, 즉 사회비판적 시선에 있다.

은 시작(詩作)은 여성들에게 적합한 한문 교양의 범주를 벗어난 본격적인 한시문의 향유이다.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글에서는 한문 교양이 있거나 똑똑했다거나 하는 점들을 강조하고 동시에 시대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지적 면모를 아는 이가 없었다는 등의 서술을 덧붙여 소위 해당 여성의 부덕을 기리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한문 교양이 긍정적 자질이 되려면 조심스럽게 기리는 서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오도일은 어머니의 깊은 한문 교양을 구태여 부덕(婦德)으로 연결 지어 가리지 않고, 그녀의 취향으로 드러냈으며, 공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 역시 ‘시절을 근심하고 세속에 대해 분개하는 뜻’이자 ‘천성’으로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아내나 딸에 대한 행장에서조차 해당 여성의 지적인 면모에 대해 기록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아버지가 쓴 딸에 대한 행장이나 제문에서는 그 여성의 재주, 즉 탁월한 지적 능력이나 한문 교양에 대한 안타까움이 잘 드러난다. 그런데 여성들의 한문 교양에 대한 서술은 대개 부덕에 합당한 범주 안의 교양으로 서술되는 데 비해 오도일 어머니의 경우는 부덕을 초과한 수준을 여과 없이 기록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그 대상이 효의 대상이자 집안 어른으로서의 위치를 지닌 어머니였기에 조금 더 과감한 서술이 가능했던 까닭으로 보인다²⁸⁾.

28) 서영수합의 시문집 간행의 경우처럼 조선시대에 집안 여성들의 시문에 대한 인정이 현상적으로 보이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이는 재녀(才女)에 대한 인정, 즉 중국 강남의 여성 문인에 대한 인정과 연관하여 설명된다. 그러나 오도일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그대로 노출하는 어머니의 시 작품을 전문 인용하는 것은 중국 강남의 여성문인 영향과는 별 상관없이 보인다. 왜냐하면 오도일 어머니가 <기민탄>을 지은 때는 그녀의 말년에 해당하던 1667년으로 17세기 중반인데, 우리나라에 중국 강남의 여성 문인 인정에 대한 영향이 소개되기 시작하던 때는 18세기 후반인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즉 오도일이 어머니의 한시 작품 자체를 소개하는 것은 중국 강남 여성 문인, 재녀(才女)와 관련한 영향 여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인정과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오도일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강남 여성 문인 인정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박무영의 논문에서 자세

그런가 하면 여가를 보내는 방식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는 작품도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로는 이덕수(李德壽)의 <선비행록(先妣行錄)>²⁹⁾을 들 수 있다. <선비행록>은 이덕수가 어머니에 대해 쓴 것이지만 이 글의 밑 자료는 이덕수의 아들 이산배(李山培)가 할머니 행장을 위해 써 놓았던 기록이다. ‘행록’이라는 어휘 선택에는 이 같은 정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문 서술 중 이덕수 어머니 심씨를 가리키는 호칭이 ‘어머니’, ‘할머니’ 등으로 나타나는 까닭 역시 이런 서술 정황에서 기인한다. 이덕수는 생전에 많은 가족 구성원들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는데 아들 이산배 역시 이덕수보다 먼저 죽었다. 이 행장은 끝 부분에 행장 대상과 서술자의 관계, 서술 경위 등에 대한 내용 없이 급작스럽게 마무리가 된다. 이덕수가 어머니 행장을 이같이 마무리한 것은 아들 이산배의 기록을 가능하면 그대로 수용하고자 했던 선택의 결과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행록은 매우 긴데, 심씨 부인의 취향을 짐작하게 하는 한 부분을 인용해 본다.

할머니께서는 몸을 씻는 것을 좋아하시어 며칠마다 꼭 목욕하셨고 매일

하게 다루어져 있다. 박무영, 『18-19세기 중국 여성예술가의 소식과 조선의 반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 _____, 『조선후기 한·중 교유와 젠더담론의 변화』, 『고전문학연구』 45, 한국고전문학회, 2014 참고.

- 29) 이덕수 어머니 행장에 대해서는 강성숙의 논의가 있다. 강성숙의 논의는 행장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이덕수 어머니를 ‘완벽하고 강한 어머니’ 상으로 읽어내는 데 연구의 초점이 놓이는 반면 이 논의는 그 중에서도 개인의 취향, 취미 등에 집중하여 살피고자 하였다. 강성숙은 청송 심씨의 목욕 언급에 대해 병이 들었어도 몸을 청결히 하여 스스로를 다잡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물론 목욕은 청결과 일차적으로 연결 가능하나, 청송 심씨는 ‘몸을 씻는 것을 좋아하시어 며칠마다 꼭 목욕하셨다’고 하는 원문을 볼 때, ‘좋아하다’, ‘며칠마다 꼭’ 등과 같은 표현의 사용은 그녀의 기호로 설명하기에 충분한 조건인 것으로 보인다. 강성숙, 『기억을 통해 드러나는 18세기 사대부의 여성상』, 『겨레어문학』 38, 겨레어문학회, 2007, 96~102쪽.

맑은 첫새벽에 세수하고 양치하셨는데, 오래도록 아프실 때라도 잠시라도 그만두지 않으셨다. 집안의 젊은 부녀자들이 혹시라도 근심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여 더벅머리에 피죄죄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할머니께서 재삼 타이르시어 반드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단정히 입도록 하시었다.…… 할머니께서는 나무 심기를 좋아하시어 집안의 살림에 일이 없을 때마다 걸어서 동산에 올라가 나무를 둘러보시며 좋아하셨다. 비록 정미년(1727)에 병이 위독했을 때에도 때때로 창을 열고 어린 여종들로 하여금 뜰 앞에 국화를 심게 하셨다. 6월 그믐께 병세가 약간 나아지자 할머니께서는 직접 뜰 아래로 내려오시어 손으로 국화 사이에 난 잡초를 매셨으니, 그 정신과 기력이 비록 큰 병을 앓고 난 뒤였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았다.

—이덕수, <선비행록(先妣行錄)>³⁰⁾

조선시대 여성 행장 기록에서 해당 여성이 목욕을 즐겼다는 서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집안에서 목욕을 즐기기 어려웠던 조선시대 정황을 고려해 보면 ‘몸을 씻는 것을 좋아하시어 며칠마다 꼭 목욕’을 했던 목욕 취향에 대한 언술은 상층 양반이었던 이덕수의 집안 형편을 짐작하게 하며, 동시에 청결만이 아니라 목욕에 대한 심씨의 향유를 짐작하게 한다. 조선시대 여성의 목욕에 대한 언급은 대개 제사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목욕재계’이며, 그 밖의 경우는 ‘세수’ 정도의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이에 비해 ‘좋아서 며칠마다 한 번씩 했던 목욕’은 목욕에 대한 기호를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씨는 위독한 경우에도 창 앞에 국화를 심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국화에 대한 유행이 있었고, 사대부들은 국화꽃이 피면 감상 모임을 주최하는 풍습이 있었다³¹⁾. 비록 사대부가 아닌 양반 여성이

30) 강성숙(역주), 이덕수, <先妣行錄>,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4, 보고서, 2010, 185~190쪽.

31) 정민, 『18·19세기 문인지식인층의 원예 취미』, 『한국한문학회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26~34쪽.

었지만, 집안 어른 심씨 부인의 국화 완상은 당대의 취향과 상통하는 취미였을 것이다. 이덕수 어머니의 목욕과 국화꽃 심기는 단순한 청결 유지나 의무로서의 정원 가꾸기와는 거리가 있다.

오도일이나 이덕수 어머니 행장에서는 여성 개인의 개성적 면모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런데 이산해나 이덕수의 이 같은 기록이 애초에 어머니를 기리고자 하는 의도로 서술되었는지는 미지수이다. 어머니의 개성적 면모는 의로움에 대한 강조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문 여성의 교육용 자료가 되는 어머니 행장은 대상 인물을 규범적으로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어머니 행장에서 취미나 취향 혹은 여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취미나 여가를 즐기는 여성상은 조선시대 여성의 삶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사서』에서도 여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부지런히 노동할 것을 권유한다. 더군다나 행장 속 어머니들은 대개 아들에 의해 가난한 살림살이를 잘 꾸려온 존재로 기억된다. 실제로 여성의 노동에 기대어 생계가 유지³²⁾되었던 측면들이 있기에 행장 속 어머니들은 끊임없이 노동³³⁾해야 했다. 이 노동은 부덕(婦德)으로 환원되며, 끊임없이 노동해야 되는 형편에서 여가를 논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면 취미나 여가에 관련한 일화는 기대하기 어렵거나, 있다고 해도 배제되는 부분³⁴⁾에 해당할 것

32) 조선시대 양반 부녀자들의 노동과 경제활동에 대하여는 김경미,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18~19세기 양반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권 4호, 한국여성학회, 2012, 85~117쪽 참고.

33) 신작의 <선비유사>에는 이 같은 어머니의 노동이 구체적으로 열거되면서 서술되고 있다.

34) 베 짜거나 옷 짓기 등이 여성들의 중요한 노동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것이 여공 혹은 부공으로 불리면서 부덕으로 간주되는 당대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노동이 부덕으로 환원된다면 여가는 부덕에 해가 되는 불온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이다.

행장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선시대 여성들이 취미나 여가를 즐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례로 신사임당의 그림은 그녀의 취미나 여가 생활에 해당하며, 영조 때에는 고양이를 많이 키운 여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녀는 많은 수의 고양이를 비단옷 입히고 진귀한 음식을 먹여 키워 고양이마마라고 불렀다³⁵⁾고 한다. 신사임당이나 고양이마마는 행장 기록이 아니다. 물론 행장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나무 심기를 좋아했고 또 국화도 심은 부인이나 개를 여러 마리 기른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언급³⁶⁾되기도 한다. 개성적 면모에 대한 강조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행장은 규범적 여성상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글쓰기의 장이지 규범이나 이념에서 자유로운 여성의 면모를 추억하는 글쓰기는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어머니 행장에서 개성적 면모는 적극적으로 재현되기 어려웠으나, 어머니에 대한 일화를 기록하던 중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내용들은 유교적 이념의 틀이나, 어머니나 아내 등 관계를 전제로 한 역할에서 잠시나마 벗어난 여성 개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35) “우리나라에서 전하는 이야기에, 영조 때 양반가에 고양이마마라는 사람이 고양이를 많이 키우며 비단옷을 입히고 진귀한 음식을 먹이며 한 시도 옆을 떠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고양이마마’라고 불렀다. 고양이마마가 죽었을 때 고양이 수백 마리가 밖에서 와서 그녀의 집을 둘러싸고 며칠을 울부짖으니 사람들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我東俚語, 英廟之世, 士族家有猫媽媽. 多畜猫, 衣以錦繡, 食以珍錯, 不離左右. 人號曰猫媽媽. 至猫媽媽死時, 猫群數百, 自外而去, 繞屋叫號屢日, 人頗怪之.), 이규경, 『고양이 변증설[猫辨證說]』, 『오주연문장전산고』, 萬物篇, 鳥獸類, 獸.

36) 국화 심기에 대한 것은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권 중 유언호의 <부인유사(夫人遺事)>에서 언급되고, 개를 여러 마리 기른 어머니는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6권 중 임현희의 <선비가장(先妣家狀)>에서 언급된다. 정황이 충분하게 서술되지 않아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나무 심기는 먹거리인 채소를 심는 필요와 연결되고 국화 심기는 막걸리 내는 일과 연결된 흥취로 보인다.

4. 결론

행장에서 재현된 어머니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부덕을 갖춘 유교적 이상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머니 행장류에서 재현된 어머니 모습은 여성 규훈서에서 제시하는 부덕을 기본 소양으로 지녔지만 여기에 더하여 의로움에 대한 강조가 보태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 행장에는 자식을 의방(義方)으로 가르치는 것에 더하여 의로움을 실천한 어머니에 대한 일화가 자주 거론된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자식을 교육하면서 과거급제보다는 학문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벼슬에 대한 욕심보다는 청렴함을 강조하며, 문장 재주보다는 행실이나 인품, 이(利)보다는 의(義)를 강조한 어머니를 기억한다. 이런 점은 오늘날의 어머니 교육을 고민할 때 참조할 만한 자료라고 여겨진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 자신의 가치 판단이 중요하게 개입하여 무엇인가를 선택했던 상황에 대한 기억, 확고하게 의로움을 가치 기준으로 내세우고 실천했던 어머니에 대한 일화들 역시 중요하게 기록된다. 이때의 어머니는 밥 짓는 일과 솔 빛는 일 정도나 의논하는 수준의 여성들이 아니다. 남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행동 결정까지도 충고할 만큼 판단 주체로서의 능력이 부각되는 여성들로 기억되는 어머니 형상이 드러난다. 아들들이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모습은 단지 유교 이데올로기에 따라 수동적으로 순종하고 주입 당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무비무의 유주식시의(無非無儀 唯酒食是議)’를 내세우는 경전에서의 이상적 여성상과는 달리 아들들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판단하면서 의로움에 대한 실천을 해내는 어머니의 일화를 긍정적 기억으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행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행위자로서의 여성상이 긍정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행장 서술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일화를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자 하다가 어머니의 취향이나 취미가 잘 드러나게 된 경우들도 있다. 의로움에 대한 강조가 관념적 이상형의 부덕을 초과하는 측면이 있다면, 개성적 면모에 대한 유출 또한 부덕 항목들과는 거리가 먼 어머니의 개성을 보여주게 된다. 조선시대 어머니 행장에서 개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선부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란 사회화된 면과 더불어 개인적인 면 또한 지니고 있으며, 어머니 역시 ‘어머니’로 다 설명되지 않는 잉여를 지닌 개별적 존재 여성이다. 조선시대 여성들도 부덕을 초과하는 한시문의 향유, 지적 즐거움, 목욕이나 꽃 가꾸기 등의 취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추모의 정념을 통해 언뜻 드러나게 된 면모이다.

규범적 장르인 어머니 행장에서 서술된 양상이기는 하지만, 행장 속 어머니는 관념화된 인물도 아니고 소설의 허구적 인물³⁷⁾도 아닌, 실재했던 실제 여성 인물에 대한 기록이다. 또한 행장의 어머니는 글쓴이의 존경과

37) 소설에 등장하는 어머니 역시 재현된 이미지라는 점에서 행장 속 어머니와 비견해 볼적이다. 그런데 행장의 어머니가 규범적 대상이기에 견줄 만한 소설 속 어머니 역시 긍정적 인물, 선인형 인물 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전소설 연구사를 보면 어머니 연구는 대개 계모와 같은 부정적 어머니에 집중되어 있고, 2000년 이후 간혹 모성과 관련하여 어머니를 논하는 연구가 보고되는 정도이다. 소설에서 긍정되는 어머니 중 뚜렷한 존재감이 있는 대표적 어머니로는 <소현성록> 연작의 양부인을 들 수 있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어머니 행장과는 달리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서술하는 소설에서의 양부인은 언술상으로는 긍정적 표지를 얻지만 사건의 정황과 맥락을 따져보면 지나치게 경직화되어 있거나 주체적 판단자로서의 면모보다는 가부장의 역할을 그대로 잘 수행하기 위해 오히려 극단적 입장에 서는 가모장 이미지로 그려진다. 긍정적 어머니상에 가까운 인물로는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가문을 지켜내는 <완월회맹연>의 서태부인 정도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보다 행장에 재현되는 어머니상에 더 가까운 경우는 고전소설에서 소위 자애로운 어머니로 등장하여 별다른 사건 없이 배경으로 존재하는 어머니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요 갈등에 연루되어야 부각되는 소설의 구성원리로 인해 행장 속 어머니처럼 긍정적 어머니상에 속하는 어머니 캐릭터는 소설 속에서는 배경처럼 좌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애정의 대상인 여성이 재현된 결과이다. 어머니 행장에서 재현해 내는 여성 이미지는 담론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관념화된 유교적 여성형과는 거리가 있는, 타자화되고 고착화된 ‘소위 전통적’ 여성상이 아닌 판단 주체로서의 여성, 개성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면모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19세기 문집에서도 어머니 행장은 다수 발견된다. 그런데 17, 18세기에 비해 19세기 어머니 행장에서는 실생활에 대한 관심, 치산에 대한 관심 등이 강화되면서 의로움, 공적 영역에 대한 감각이나 관여 등을 보여주는 어머니 행장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20세기 초 문집에 이르면 어머니 행장은 없이 열녀전, 효열부전 등이 주를 이루는 문집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당시 문인들이 행장류의 대상이 될 만한 어머니의 사적을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근대전환기의 삶 속에서 가족 내 삶이 달라지는 데서 비롯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렵다.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생기는 이러한 변화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경미 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4권, 보고서, 2006.
- 황수연 외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권, 보고서, 2010.
- 홍학회 외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1~9권, 보고서, 2013.
- 강성숙, 「기억을 통해 드러나는 18세기 사대부의 여성상」, 『겨레어문학』 38, 겨레어문학회, 2007, 79~109쪽.
- 김경미, 「조선 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18~19세기 양반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권 4호, 한국여성학회, 2012, 85-117쪽 참고.
- 김세서리아, 「〈선비행장〉에 대한 여성주의 독해」, 『울곡사상연구』 30, 울곡연구원, 2015, 93~118쪽.
- 김영, 「한글 필사본 <광산김씨언행록>의 자료적 고찰」, 『인문사회』 21, 제 8권 제 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473~486쪽.
- 김현미, 「19세기 선비행장류 글에 형상화된 어머니의 가르침-자녀 교육 태도와 교육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439~467쪽.
- 박무영, 「18-19세기 중국 여성예술가의 소식과 조선의 반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117~155쪽.
- _____, 「조선 후기 한·중 교류와 젠더담론의 변화」, 『고전문학연구』 45, 한국고전문학회, 2014, 207~240쪽.
- 이경하, 「망실행장류연구」, 『한국문화』 40,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1~26쪽.
- 이규경, 「고양이 변증설[猫辨證說]」, 『오주연문장전산고』, 萬物篇, 鳥獸類, 獸.
- 이규대, 「〈선비전주이씨행장〉을 통해 본 18세기 여성의 생활상」, 『역사민속학』 2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203~233쪽.
- 이숙인, 『여사서』, 여이연, 2003, 1~386쪽.
- 이승희,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자료적 고찰」, 『한국문화』 75,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97~125쪽.
- 정 민, 「18-19세기 문인지식인층의 원예 취미」,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학회, 2005, 35~77쪽.

황윤정, 『가문 질서 재생산으로서 여성 행장의 글쓰기 방식 연구-김만중의 <선비 정경부인행장>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547~580쪽.

고전번역원 > 고전원문 > 오주연문장전산고 > 만물편(萬物篇)○조수류(鳥獸類)
> 수(獸)

ABSTRACT

Virtues and Personal Interests of Chosŏn Mothers
 Represented in Haengjang of Mothers

Cho, Hae-ran

This presentation focuses on Haengjang of mothers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of Chosŏn Dynasty. Haengjang of mothers constitutes the majority of Haengjang of women during the Chosŏn period, and is rich in content. Women had to live under the rigid social restrictions in Chosŏn society, but Mother as the object of filial piety had a strong position within her family. As there are few writings about women from the time, Haengjang provides the richest source of information on women of Chosŏn.

Besides Confucious virtue in Haengjang of mothers, there is another element that stands out. It is the description of Mother's righteousness. Righteousness, which is based on the subject's judgement about right and wrong, is a factor that seems distant from Budeok, one of Sadeok, which requires women to fulfill proper female duties. The Haengjang of mothers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shows that quite a number of women made practical decisions based on their judgement on the political power and their sense of public justice.

The Haengjang of mothers and grandmothers, not unlike that of wives, sisters or daughters, certainly includes the descriptions of female virtues such as gentle personality, weaving skills and frugality. Yet, what interests me in Haengjang of mothers and grandmothers is the description of the subject's refinement and talents which are related to her private interests beyond proper female virtues. The analysis of the narrative style describing the subject's intelligence, refinement, interest, or talent would enable us to determine whether her actions and behaviors were to cultivate the Confucian virtues or to satisfy her personal interest

and/or intellectual curiosity. If certain narratives are concluded as the latter, they would be meaningful sources with which we can examine women of Chosŏn as individuals. As there are little documents providing information on Chosŏn women as individuals, Haengjang can be a meaningful and important research material.

Key Words Haengjang(行狀), (dead) mother, virtue, righteousness, interest

| | |
|-------|--------------|
| 논문투고일 | : 2017.07.15 |
| 심사완료일 | : 2017.08.08 |
| 게재확정일 | : 2017.08.22 |